

정율성 생가터 논란 '점입가경'

동구 "출생지 불로동 생가 복원 지원 하겠다"

남구-중친회 대립 이어 지자체간 갈등 비화

중국 대표적 혁명 음악가 정율성 선생(1914~1976)의 생가터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하고 있다. 출생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광주 시 남구와 하동 정씨 종친회에 이어 동구까지 가세, 새로운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의회 배용태(민주·동구 가) 의원은 지난 10일 임시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가 동구 불로동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광주시도 불로동 일대를 대상으로 생가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광 수입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구청

의 입장을 물었다. 김영준 동구 문화수도추진단장은 "고층 등을 통해 정율성 선생의 불로동 출생설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검토 중인 '정율성 선생 불로동 생가 복원사업'이 확정, 시행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이들의 입장은 '양립동'임을 주장하는 남구청과 상반된 것으로, 향후 생가터 복원사업을 둘러싼 두 자치단체간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남구청도 발끈했다. 동구청과 의회까지 나서 하동 정씨 종친회의 기준

'불로동' 출생설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 선생의 양립동 출생설은 고증을 통해 이미 입증된 것이며 최근 법적 분쟁도 일단락됐는데 또다시 문제 삼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치단체간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 '불쌍사나운 일'이라는 것이다. 자치단체간 갈등을 확산하는 대신 정확한 고증을 통해 논란을 종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지하철역 도서관 전국 지하철 가운데 처음으로 11일 남광주역에 문을 연 '메트로 열린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교통문화사랑 실천봉사단이 공동 개설한 이 도서관에는 5천5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 자체 개발한 정수기 아프리카 오지에 보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아프리카에 정수기를 보낸다.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는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의 오지마을에 우리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막(膜)여과 방식 정수시스템을 보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번 계획을 'GIST 웅달샘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앞으로 해의 오지 정수기 보내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수단으로 가게 될 '웅달샘 1호'는 해당 마을에 전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50만원을 들여 특수제작했다. 정수기에 사용된 막은 웅진케미칼이, 정수기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350만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내 해수담수화사업단이 각각 지원했다. 웅달샘 1호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 중인 최인혁씨가 광주과학기술원

자신 2006년 부산중공업의 지원을 받아 정수시설을 캄보디아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한 뒤 광주과학기술원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결과다. 광주과학기술원 관계자는 "GIST 웅달샘 프로젝트"를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호남 첫 환경성질환연구센터 개소 화순전남대병원...소아암 원인·예방 연구

올해 7월 지역에서는 최초로 소아암 분야 '환경성질환연구센터'로 지정된 화순전남대병원이 오는 14일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소아암의 원인규명과 예방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화순전남대병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센터장 국 훈 소아과 교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병원 내 대강당에서 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김영진 전남대병원장, 범희승 화순전남대병원장, 유관기관 및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 훈 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센터 현판식과 함께 '환경물질과 질병', '환경물질과 소아암의 발병기전'이란 주제로 소아암·백혈

병·유전학·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박미자 환경부 환경정책과장이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라는 제목으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부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10개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의 연구 수행능력,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한 5개 병원을 환경성질환연구센터로 확정했다. 국 훈 센터장은 "소아암과 백혈병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소아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표문화전당 운용 시스템 개발 시동

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 핵심시설 용역 발주

오는 2012년 개관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용체계·콘텐츠 구축 작업이 본격화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 아시아 문화 전당의 5개 핵심시설의 운용 시스템을 마련을 골자로 한 '2008년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운용체계 구축사업' 8개 용역(용역비 26억원)을 발주했다. 문화전당의 핵심시설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

지식문화원 등이다. 용역은 아시아 문화전당 각 시설별 운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의 운영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2006년부터 전당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시설·장비 구축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에 발주된 주요 시설별 용역 과제로는 민주평화교류원의 경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통합 CI개발',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 생태 문화 연구 및 문화자원수집'이 제시됐다.

문화창조원의 용역 과제는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제작'이다. 아시아 예술극장 용역 과제로는 '아시아 예술극장 경영 및 공간 컨설팅', 어린이 지식문화원은 '어린이 지식문화원 전시공간 구성방안' 등이 용역과제로 제시됐다. 추진단은 조달청을 통해 용역 발주·계약을 체결하며, 13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관련 제안 요청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첨단산단내 한국광기술원 시험생산 3동 증축

한국광기술원(원장 유은영)이 입주기업들의 급증하는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험생산 시설을 증축, 1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시험생산 3동은 광주 북구 월출동 첨단산단 내 시험생산 1, 2동 인근에 신축했으며 이날 입주식을 갖는다. 철골조 지상 2층에 건축면적 660㎡ 규

모로, 330㎡의 클린룸(먼지를 제거한 청정실)을 갖췄다. 이로써 광기술원 내 시험생산 지원 공간은 클린룸 2천 640㎡를 포함해 4천445㎡로 늘었다. 신축된 3동에는 경기도에서 광주로 옮기는 (주)제이엘엠 등 3개 기업이 입주한다. /정후식기자 who@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주)국제보청기
(여) 227-9940

총창점 (주)국제보청기
(여) 227-9970

(주)제주무궁화관광

프리미엄 제주여행 서비스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3,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16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17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189,000원

문의 064-744-1109

푸른산 레크리빌

분양/임대개시(푸른산레크리빌)

분양/임대개시(푸른산레크리빌)

문의 064-744-1109